

麗末・鮮初 醫書의 編纂과 刊行

孫 弘 烈
淸州大 歷史教育科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the Publication of Medical Books in the Late Koryŏ Dynasty and the Early Chosŏn Dynasty

SOHN Hong-Yul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Chong J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to discuss the effects of the medical books compiled and published in the late Koryŏ Dynasty and the early Chosŏn Dynasty.

A wider and deeper study of the Korean native medicinal stuff gained momentum beginning from the late Koryŏ Dynasty, resulting in the publication of various medical books on the local medicinal stuff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In particular, King Sejong, King Sejo and King Sŏngjong, who had a keen interest in the medical field, made a great deal of efforts to enhance the medical art through the improvement of medical system and education in the country. Consequently, an excellent medical book entitled "Hyang Yak Chip Sŏng Bang" was published in the King Sejong period, and later another famous medical book of "Ŭi Pang Yu Ch'ui", a comprehensive compilation of oriental medical arts, was published.

The compilation of the above-mentioned two books on medicine was known as one of the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Korean medical science at that time. These academic achievements laid the foundation of the famous medical book, "Tong Ŭi Po Gam", compiled by Hŏ Chun. Moreover, every effort was made for the medical development in the periods of King Sejo and King Sŏngjong through the publication of new medical books and the Chinese books on medicine in the Myŏng period of China. The medical book, "Ŭi Pang Yu Ch'ui", in particular,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invaluable cultural assets not only in terms of its quantity but also in its quality.

To recapitulate, the compilation and the publication of the medical books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resulted in paving the way for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Korean medical science. It is regrettable, however, that the great tradition of such an academic achievement could not be further developed due to the reckless inducement of the Chinese medicine in the Myŏng period of China.

* 1989년 11월 1일 접수; 1989년 11월 10일 게재결정.

1. 序 言

우리나라에서는 三國時代 이래 醫療機構가 成立되어 民疾을 치료함은 물론, 이와 관계되는 多數의 醫書가 編纂·刊行되어 왔다. 그러나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編纂·刊行된 醫書에 대해서는 資料의 貧困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麗末·鮮初의 史料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다소나마 그 실태를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鮮初에 醫書의 編纂과 刊行은 鄉藥의 開發, 普及와 함께 韓國醫學史上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통한 醫學教育의 擴大는 民疾의 치료에 크게 공헌하였다. 더욱이 鮮初 醫學의 學問的 發達과 技術的 發展 및 民疾의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世宗, 世祖, 成宗 등은 醫書의 編纂과 刊行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鮮初 醫學의 自主的 發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本稿는 醫書의 編纂과 刊行을 時代別로 考察하되 麗末鮮初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2. 三國時代의 醫書

三國時代에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著述 또는 編纂되거나, 國內外的 醫書가 刊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는 직접적인 資料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資料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극히 일부분만을 考察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먼저 高句麗는 일찍부터 中國과 地境을 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軍事的으로 또는 文化的으로 交流가 매우 활발하였다. 이러한 中國과의 관계에 있어서 醫學의 交流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직접적인 資料는 없다. 그런데 王燾가 편찬한 「外臺秘要方」卷18 脚氣上「脚氣衝心煩悶方」條에

張文仲療脚氣 毒氣功心手足脈絕 吳茱萸六升 木瓜二枚切 右二味以水一斗三升 煮取三升 分三服 或以吐汗便活 蘇恭敬云 服得活甚易 但鑽擊小 時熱悶耳 此方是爲起死 是高麗老師方 與徐王方相似

라 하여 唐代에 王燾가 편찬한 「外臺秘要方」에 高句麗 醫員의 方文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高句麗 醫의 方文이다. 이 方文을 인용한 張文仲은 7세기말 中國의 侍御醫였으며,¹⁾ 이 方文에 보이는 「高麗老師」는 「高句麗의 老醫師」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1條의 方文만으로는 高句麗에서 어떠한 種類의 醫書가 編纂 또는 刊行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醫方이 中國에 전해졌다면, 그것은 高句麗에도 이미 독자적인 醫書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資料의 부족으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뿐이다.

百濟의 醫書로는 유일하게 「百濟新集方」만이 그 書名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편찬된 것인지 알 수 없고, 日本 醫書인 「醫心方」에 그 方文이 두군데 인용된 것으로 보아²⁾ 이러한 醫書가 百濟에서 편찬, 간행되어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百濟의 醫書도 上記한 「百濟新集方」1冊뿐이지만, 百濟는 일찍부터 中國과 通交하여 그 文化를 수입하였고, 특히 中國南朝와의 빈번한 교류로 中國式 醫療制度를 채택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³⁾ 따라서 中

1) 張文仲은 則天武后 時의 尙藥奉御로서 「隨身備急方」 등을 著述한 醫師였다(新唐書 卷204 列傳 卷129 方技 張文仲傳).

2)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79, pp. 48-49.

3) 孫弘烈, 「韓國醫療制度史研究」, 慶熙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pp. 41-46.

國에서도 百濟에 대하여, 百濟는 醫術을 이해함은 물론 藥品도 中國과 같은 것이 많다고 하였으며⁴⁾

括地志曰…(中略)…亦解醫療・着龜・占相・婚姻之禮 略於華⁵⁾

라 하여 醫療가 中國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의료제도는 물론 藥品의 交流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醫員, 藥品과 더불어 醫書의 수입과 刊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百濟에서 독자적으로 「百濟新集方」과 같은 醫書를 편찬한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또한 百濟는 三國 중에서 日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自國의 文化를 日本에 이식함으로써 日本의 古代文化 發達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중에는 醫學⁶⁾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百濟는 여러 차례에 걸쳐 醫師, 採藥師, 呪禁師는 물론 藥品까지 日本에 보내 日本 古代醫學 發達에 기여했던 것이다.⁷⁾ 「百濟新集方」도 이렇게 해서 日本에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百濟의 醫學 수준으로 보아 國內에서 편찬된 醫書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詳考할 만한 資料가 없다.

끝으로 新羅의 경우는 高句麗, 百濟보다 비교적 史料가 많다. 즉 新羅에는 景德王 이전에 藥典이 설치되어 있었고,⁸⁾ 여기에 醫師와 行政官吏가 속해 있으면서⁹⁾ 宮中의 疾病治療는 물론 醫學敎育도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는 統一 후 醫學을 설치하고, 여기에 博士 2명을 두어 학생에게 「本草經」, 「甲乙經」, 「素問經」, 「針經」, 「脈經」, 「明堂經」, 「難經」 등 7科目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¹⁰⁾ 위에 列學한 7科目은 기초과목으로서, 이에 관계되는 醫書는 中國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지만, 醫生을 敎育하고 民疾을 치료하기 위하여 國內에서 필요한 만큼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傷寒論」, 「外臺秘要」 등 隋・唐代의 醫書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¹¹⁾ 新羅도 독자적으로 醫書를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現存하는 것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高麗時代에 金永錫이 「濟衆立効方」을 편찬할 때 宋과 新羅 醫書를 참고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¹²⁾ 당시에 독자적인 醫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新羅 醫方이 日本 醫書에 몇가지 전하고 있다. 즉 「新羅法師方」, 「新羅法師觀秘密要術方」, 「新羅法師秘密方」 등이 그것으로 984년 丹波康賴가 편찬한 「醫心方」 중에 들어 있다. 이 方文의 著作年代는 분명치 않지만 대개 統一以後로 생각되며,¹³⁾ 모두 醫學에 밝은 醫僧의 方文으로 보인다. 이 方文의 내용에 대하여는 金斗鍾과 三木榮가 고찰한 바 있으므로¹⁴⁾ 생략하겠다. 그리고 808년에 出雲廣貞 등이 편찬한 「大同類聚方」에도 三國의 醫方이 13條(新羅 7條・百濟 4條・高句麗 및 加羅 各 1條)나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¹⁵⁾ 三國은 물론 加耶에서도 독자적인 醫書가 편찬되어 외국에까지 전파되어 있었음을 알 수

4) 周書, 列傳41 百濟傳.

5) 翰苑, 百濟傳.

6) 여기에서 醫學이라 함은 단순히 學問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醫術, 藥學, 針灸術, 呪禁業 등 醫學의 全分野를 망라하는 것을 말한다.

7) 孫弘烈, 前揭論文, pp. 59-61.

8) 三國史記, 卷39 雜志8 職官中 藥典條

9) 上揭書, 新羅本紀 9 景德王 17年 4月條

10) 上揭書, 卷39 雜志8 職官中 醫學條

11) 金斗鍾, 前揭書, p. 70 參照.

12)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上, p. 391, 金永錫墓誌.

13)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三木 榮宅, 1963, p. 22.

14) 金斗鍾, 前揭書, pp. 74-77, 三木 榮, 前揭書, pp. 21-23 參照.

15) 三木 榮, 前揭書, p. 23.

있다.

3. 高麗時代의 醫書

高麗의 醫療制度는 初期에는 新羅의 制度를 계승한 것이었으나, 成宗代 唐制를 모방하여 制度를 改編하였고, 뒤에 宋制를 여기에 가미하였다. 또한 高麗의 독자적인 제도도 설치하여 文宗代에 이르면 醫療制度는 완비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麗代에는 學問이 발달하고, 中期 이후에는 印刷術도 발달하였지만, 編纂, 刊行된 서적은 대부분이 佛敎와 儒學, 文學 등에 관한 것이었고, 醫學 등 다른 分野의 것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 前期에도 醫書가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장 먼저 撰述된 것은 金永錫이 편찬한 「濟衆立効方」이다.¹⁶⁾ 이 책은 宋 및 新羅의 醫書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었다. 이 책은 현존하지 않고, 方文도 「鄉藥集成方」에 1條밖에 전하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치료방법이 中國醫書에도 보이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어서 新羅 이래의 傳統的 經驗方임을 알 수 있다.¹⁷⁾ 다음으로는 崔宗峻이 편찬한 「新集御醫最要方」 2권이 있는데, 이것은 일제기 茶房에서 수집한 1秩의 方文이 탈루되어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補完한 것으로서, 1226년(高宗 13) 西京에서 刊行한 것이다.¹⁸⁾ 이 책 역시 現存하지 않으나 「鄉藥集成方」에 12條의 方文이 실려 전하기 때문에 내용을 약간이나마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거의가 中國醫學의 지식을 전하고 있지만, 藥材에 대해서는 '독자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高麗中期의 醫學水準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¹⁹⁾ 또 撰著는 未詳이나, 高宗代에 편찬된 것으로 現存하는 우리나라 最古의 醫書인 「鄉藥救急方」이 있다. 이 책은 3卷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55종의 질병을 치료하는 方文이 있고, 附錄으로 鄉藥 180種에 대한 俗名, 藥味, 藥毒 및 採取方法 등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 당시의 醫學知識뿐만 아니라, 吏讀을 통해 麗代 言語研究에도 매우 중요한 文獻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⁰⁾ 이 책은 大藏都監에서 刊行한 것이나, 高麗本은 없어지고 1417년(太宗 17) 義興에서 重刊한 것이 전하고 있다.²¹⁾ 그리고 元宗 때 李嗣은 「黃帝八十一難經註義圖序論」 5卷을 撰述하였는데,²²⁾ 이것은 「黃帝八十一難經」의 註解書로 생각되며, 이 때는 이러한 醫書를 註解한 정도로 醫學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 末期에는 國內外 情勢가 복잡하였지만, 恭愍王은 官學과 私學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이 때 많은 책이 著述되었고, 그중에는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도 6種의 醫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三和子鄉藥方」: 이 책은 三和子(姓名未詳)가 撰述한 鄉藥方書로 「鄉藥濟生集成方」에 28綱目에 걸쳐 方文이 190餘條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가장 실용적인 醫書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鮮初에 이를 보완하여 「鄉藥濟生集成方」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²³⁾

16) 朝鮮總督府編, 前掲書, p. 391, 金永錫墓誌

17) 金斗鍾, 前掲書, p. 137 參照.

1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1 「新集御醫最要方序」. 이 序文에 의하면, 茶房에서 편찬한 醫方이 있었다고 하나 內容이나 書名을 알 수 없다. 三木榮은 이 책을 「藥方」 또는 「醫方」이라 하였으나 이는 書名이 아니다, (三木 榮, 「朝鮮醫籍考」, p. 65 參照).

19) 金斗鍾, 前掲書, pp. 138-139 參照.

20) 上掲書, pp. 139-141 參照.

21) 三木 榮, 「朝鮮醫籍考」, p. 91 「鄉藥救急方跋文」.

22) 李錫麟, 「高麗時代 儒學振興과 書籍編纂」, 「湖西史學」 8·9 合輯, 1981, p. 113. 註

23) 東文選, 第91卷, 權近 「鄉藥濟生集成方序」.

- ㉠ 「鄉藥古方」: 이 책도 麗末에 편찬된 것으로 「鄉藥集成方」에 方文이 4條 인용되고 있다.²⁴⁾
- ㉡ 「鄉藥惠民經驗方」: 이 책은 鮮初 地方醫生의 敎材로 사용된 것으로,²⁵⁾ 「鄉藥集成方」을 편찬할 때 方文 26條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麗末의 鄉藥書로 보인다.
- ㉢ 「東人經驗方」: 이 책도 撰者는 未詳이지만 그 方文이 「鄉藥集成方」에 6條, 「新編集成牛馬醫方」에 5條가 인용된 바 있다.²⁶⁾
- ㉣ 「鄉藥簡易方」: 이 책은 前述한 「三和子鄉藥方」의 내용이 너무 간략하므로 權仲和가 徐贊에게 命하여, 여러 方文을 보내어 만든 簡易方으로서,²⁷⁾ 「鄉藥集成方」에 13門에 걸쳐 50餘 方文이 인용되고 있다.
- ㉤ 「診脈圖訣」: 이 책은 1389년(恭讓王 1)에 鄭道傳이 편찬한 것으로 諸家의 說을 詳考하여 그림을 만들고, 凡例를 해석하고, 要訣을 적어 診脈하는 데 참고하려 한 것이다.²⁸⁾

이상 6種의 醫書는 모두 現存하지 않는 것이지만, 단편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麗末의 醫學水準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다. 그중 ㉠~㉣은 모두 鄉藥方書로서, 高麗後期에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鄉藥書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高麗의 醫學이 中國醫學의 답습단계를 지나 自國의 風土와 人體에 적합한 國產藥材를 이용, 독자적인 치료법을 발달시키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麗代에 刊行된 醫書를 보면, 文宗 10년(1056) 西京留守의 奏請으로 秘書閣에 소장되어 있는 史書, 經書, 諸家文集과 醫, 卜, 地理 등 諸書를 1벌씩 印刷하여 西京의 諸學院에 보내 주었는데,²⁹⁾ 이 때 어떠한 醫書가 刊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同 12년 9월에는 忠州牧에서 「黃帝八十一難經」, 「川玉集」, 「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 「張仲卿(景)五臟論」 등 醫書의 木板 99板을 新彫하여 바침으로써 이를 秘閣에 두게 하였고,³⁰⁾ 이듬해 2월에는 安西都護府 都官員外郎 吳善貞 등이 醫書인 「肘後方」 73板, 「疑獄集」 11板, 「川玉集」 10板 등을 세겨 바쳤다.³¹⁾ 그리고 恭讓王 때 書籍店에서 「診脈圖訣」, 「鄉藥簡易方」 등이 刊行된 것으로 보아, 肅宗 때 설치한 書籍店 등에서도 醫書가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宣宗 때 宋에서 요청한 「古今錄驗方」 등 11種의 醫書³²⁾와 肅宗 때 수입한 「神醫補救方」³³⁾ 등 諸書도 국내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太宗 12년(1412) 8월 史官 金尙直이 忠州史庫에서 가져온 서적 중 「小兒巢氏病源候論」, 「五藏六腑圖」, 「新彫保童秘要」, 「廣濟方」, 「陳郎中藥名詩」, 「神農本草圖」, 「本草要括」, 「王叔和脉訣口義辨誤」, 「黃帝素問」 등 9種의 醫書도³⁴⁾ 高麗時代に 刊行된 것이다. 이와같이 麗代에는 國內外 醫書와 新羅時代부터 전해 오던 醫書가 多數 刊行됨으로써 醫學發達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들 醫書가 대부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 하겠다.

24) 三木 榮, 前掲書, p. 144.

25) 太祖實錄, 卷3 2年 正月 乙亥條.

26) 東文選, 第91卷, 權近, “鄉藥濟生集成方序”.

27) 上掲書, 同上條.

28) 上掲書, 第105卷 李崇仁 “診脈圖訣跋文”.

29) 高麗史節要, 卷4 文宗 10年 8月條.

30) 高麗史, 世家 卷8 文宗 12年 9月 己巳條.

31) 上掲書, 世家 卷8 文宗 13年 2月 甲戌條.

32) 東文選, 第34卷 表箋, 金緣, “謝遣醫官敎習表”.

33) 高麗史節要, 卷6 肅宗 6年 6月條.

34) 太宗實錄, 卷24 12年 8月 己未條 및 甲子條.

4. 朝鮮 初期의 醫書

鮮初에는 世宗, 世祖, 成宗 등 醫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王들이 있어 醫學이 크게 발달하였고, 이에 따른 技術은 물론 醫療制度和 醫學教育 및 醫書의 편찬과 간행에 큰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 醫學의 自主的 基礎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A. 醫書의 編纂

鮮初에는 여러 종류의 醫書가 편찬되었던 바, 이를 鄉藥書, 專門醫書, 綜合醫書, 其他醫書 등으로 分類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① 鄉藥書의 編纂

鮮初에 편찬된 鄉藥書로는 「鄉藥濟生集成方」, 「鄉藥採取月令」, 「鄉藥集成方」 등이 있다. 鄉藥의 栽培와 이를 이용한 치료법은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麗末에 數種의 鄉藥書가 編纂됨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中國產 藥材는 高價인데다가 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값이 싸며 우리의 體質에 적합한 鄉藥의 이용을 권장한 것도 우수한 鄉藥書를 編纂하게 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朝鮮時代 最初의 鄉藥書는 「鄉藥濟生集成方」이다. 이 책은 現存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權近의 序文에 의해 보면,³⁵⁾ 麗末에 編纂된 「三和子鄉藥方」이 너무 간결해서 이를 「鄉藥簡易方」으로 再編하였는데, 鮮初에 濟生院이 설치되고,³⁶⁾ 여기에 간여하였던 趙浚 등의 건의에 의해 藥局官들과 함께 「鄉藥簡易方」의 모든 方文을 다시 詳考하고 우리나라의 經驗方을 採集, 追加하여 部門으로 分類, 編集한 것이다. 이 책은 太祖 7년(1398) 8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이듬해(定宗 元年) 5월에 完成된 것으로서,³⁷⁾ 모두 338證·2,803方으로 된 30卷의 鄉藥書이다.³⁸⁾ 이 책의 편찬에는 趙浚 외에 金士衡, 金希善, 韓尙敬, 安敬良, 金元岡, 許衡, 李惊, 房士良 등이 함께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는 「新編集成牛馬醫方」이 附刊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後述하고자 한다. 이 「鄉藥濟生集成方」은 朝鮮 最初로 편찬된 鄉藥書로서 뒤에 편찬된 「鄉藥集成方」의 母體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편찬된 것은 「鄉藥採取月令」이었다. 이 책은 麗末 이래 需要가 증가한 鄉藥의 採取를 위한 것이었다. 1년 12달 동안 각지에서 生産되는 藥材에 대한 藥名, 產地, 藥味, 藥性 및 乾正法을 月別로 기록한 것인데, 현재 原本은 없고 寫本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³⁹⁾ 現存하는 이 책에 있는 160餘種 藥材의 藥味, 藥性 및 乾正法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하지 않고 있다.⁴⁰⁾ 이러한 鄉藥의 藥性, 藥味 등의 分類는 使行에 따라가는 醫官 편에 中國으로 보내어져 中國의 醫官과 함께 이를 연구하여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鄉藥에 관심이 많았던 世宗은 이의 開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鄉藥書가 편찬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世宗 10년(1428) 閏 4월에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이 王命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同

35) 權近, 「陽村先生文集」卷17 “鄉藥濟生集成方序”.

36) 俞孝通等撰, 「鄉藥集成方」, “權探序文”參照.

37) 權近, 前揭書 卷22 “鄉藥濟生集成方跋文”.

38) 俞孝通等撰, 前揭書, “權探序文”參照.

39) 이 책은 景宗 2年(1722) 日本人 大森塙가 筆寫한 것으로, 白井光太郎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岡田信利가 傳寫, 三木 榮이 한국에 다시 전한 것이다(三木 榮, 「朝鮮醫籍考」, p.5 參照).

40) 俞孝通等撰, 「鄉藥採取月令」, 世宗記念事業會, 1983.

13년(1431) 12월 完成하여 간행한 朝鮮 最古의 本草書인 것이다.

끝으로 「鄉藥集成方」은 現存하는 朝鮮 最初의 醫書로서 鄉藥研究를 集大成한 것이다. 朝鮮時代에 편찬된 3大醫書(鄉藥集成方·醫方類聚·東醫寶鑑) 중 하나인 이 책은 世宗 13년(1431) 가을에 王命을 받아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등이 먼저 刊行된 「鄉藥集成方」을 底本으로 하여 諸方書를 참고하고 여러 方文을 추가하여 同 15년 6월 總 85卷으로 完成한 것이다. 이 책은 「鄉藥集成方」의 舊證 338에 621證을 추가하여 959證으로, 舊方 2,803에 7,903方を 추가하여 10,706方으로 만들었으며,⁴¹⁾ 이밖에 鍼灸法 1,476條와 鄉藥本草 및 諸品藥石의 炮製法이 附記되어 있다.⁴²⁾

이 책의 底本은 「鄉藥集成方」이지만, 이밖에 「三和子鄉藥方」, 「鄉藥簡易方」, 「鄉藥救急方」, 「鄉藥古方」, 「東人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은 물론, 「濟衆立効方」, 「御醫撮要方」과 「鄉藥採取月令」 등 우리나라 固有醫書와 「聖惠方」, 「聖濟總錄」 등 中國醫書 156種을 참고하여 學者(儒醫)와 醫官이 여러 해에 걸쳐 편찬한 것이다.⁴³⁾ 이 「鄉藥集成方」은 朝鮮 前期의 醫學知識을 알려 주는 거의 유일한 서적이며, 또한 本草學史上 珍貴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文獻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本書의 編纂은 우리나라 醫學의 自主의 發展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韓國科學史上 빛나는 文化的 業績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② 專門醫書의 編纂

鮮初에도 數種의 專門醫書가 편찬되었는데, 이를 醫書別로 나누어 考察하기로 하겠다.

먼저 「產書」가 있는데, 撰者는 不明이나 鮮初에 편찬된 產科專門 醫書로서, 世宗朝부터 醫官과 醫女의 必讀書가 되었다. 즉 世宗 12년(1430) 12월부터는 醫員의 四孟朔取才 時와 醫女에게 每月 「產書」를 考講하게 하였고,⁴⁴⁾ 世祖 8년(1462) 醫書習讀官의 勸懲法을 다시 마련하였을 때 시험과목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⁴⁵⁾ 同 10년에는 醫官의 必讀書로 지정되었고,⁴⁶⁾ 成宗 9년(1478) 2월부터는 醫女의 教材로 사용하는⁴⁷⁾ 등, 醫官과 醫女의 基本教材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盧重禮의 「胎產要錄」과 함께 매우 중요시되던 醫書였다.

다음에는 盧重禮의 「胎產要錄」이 있다. 盧重禮는 鮮初의 著名한 醫官으로 朝鮮 前期 醫學 發達에 至大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本書도 世宗의 命으로 그가 편찬하여, 同16년(1434) 3월에 刊行한 것으로, 上卷은 胎產門(胞胎教養法) 20條·下卷은 嬰兒將護(嬰兒保護育成法) 28條로 되어 있으며,⁴⁸⁾ 「胎產救急方」, 「錢氏小兒方」 등 16종의 醫書를 참고하였다. 이 책 역시 醫生의 교육은 물론 醫科와 取才科目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⁴⁹⁾ 醫員의 必讀書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 「鍼灸擇日編纂」 1卷은 世宗 29년(1447) 內醫院 醫官 全循義와 金義孫이 「孫眞人備急千金方」, 「資生經」 등 16종의 醫書를 參考하여 鍼灸日時의 吉凶을 택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⁵⁰⁾ 이때

41) 世宗實錄, 卷60 15年 6月 壬辰條, “權探序文” 參照.

42) “鍼灸法”은 宋代에 편찬한 「資生經」에서 經穴의 名稱, 位置, 測定法, 鍼深, 灸數 및 禁忌 등을 뽑아 해당 病門에 記載하였으며, 卷頭에 鍼灸目錄을 넣었다. “鄉藥本草”는 宋의 「證類本草」의 형식을 빌어 우리 固有 藥材 630餘種을 動物, 植物, 礦物 등으로 分類하여 藥名 밑에 鄉名, 藥味, 藥性, 効能과 採取時期 등을 기록하였다. 炮製法은 生藥의 製法을 기술한 것으로 他本草書에는 없는데, 이는 鄉藥을 完全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하겠다.

43) 三木 榮, 「鄉藥集成方解說」, 杏林書院, 1942, pp.5-16 參照.

44) 世宗實錄, 卷50 12年 12月 辛巳條.

45) 世祖實錄, 卷27 8年 2月 己卯條.

46) 上揭書, 卷32 10年 正月 乙卯條.

47) 成宗實錄, 卷89 9年 2月 己酉條.

48) 世宗實錄, 卷63 16年 3月 壬午條.

49) 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 取才條.

50) 金信根: 「韓醫藥書巧」, 서울大出版部, p.106, “金禮蒙序文” 參照.

이러한 醫書가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은, 世宗 20년(1438) 3월부터 매년 鍼灸專門生 3人을 敍用하여 三醫司에 1명씩 배치하기 시작한 후⁵¹⁾ 鍼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때 刊行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原刊本은 없어지고 그 抄本이 日本에 전해졌다가 1890년 중국에서 다시 간행하였다.⁵²⁾

끝으로 任元濬이 撰述한 「瘡疹集」이 있다. 이 책은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으나, 日本의 「車修堂藏書目錄」에 「瘡疹集 抄朝鮮本 任元濬奉教撰」이라 보이고 있어,⁵³⁾ 그가 王命에 의해 편찬하였음을 알게 해 주고 있다. 撰述時期는 알 수 없으나 世祖代로 생각된다. 그것은 世祖 8년(1462) 2월 習讀官 所講醫書 중에 처음 보이고 있고,⁵⁴⁾ 同 10년 正月에 新定한 醫員所讀講書로,⁵⁵⁾ 또 成宗 2년(1471) 5월에 改定한 四孟朔取才 科目의 하나로 지정되었으며,⁵⁶⁾ 醫科와 醫學取才 科目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⁵⁷⁾ 朝鮮 前期의 유일한 瘡疹(痘瘡)학로서 뒤에 許浚의 「痘疹集要」가 나올 때까지 매우 重視되던 醫書였던 것이다.

③ 綜合醫書의 編纂

朝鮮 前期에 편찬된 綜合醫書 중 最高의 업적은 「醫方類聚」의 편찬이라 할 수 있다. 「鄉藥集成方」도 대표적 綜合醫書지만, 이것은 鄉藥 爲主의 醫書인데 비해, 이 「醫方類聚」는 唐, 宋, 元, 明初의 中國醫書 및 國內醫書 등 153種을 총망라하여 편찬한 東洋醫學의 大百科辭典의 醫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世宗 25년(1443) 편찬을 시작하여 同 27년 10월까지 약 3년이 소요된 大作으로 朝鮮 前期 醫學의 金字塔이다.

이 책의 편찬에는 多數의 學官과 醫官이 참여하였다. 즉 集賢殿의 金禮蒙, 柳誠源, 閔普和 등에게 命하여 諸方을 分門 類聚해서 1책을 만들게 한 다음, 다시 金汝, 辛頤祖, 李芮, 金守溫과 醫官 全循義, 崔問, 金有智 등으로 하여금 편집하게 하였고, 安平大君 塔, 李思哲, 李師純, 盧重禮 등으로 이를 감수하게 하여 3년만에 365卷을 完成하였던 것이다.⁵⁸⁾

그러나 이 책은 너무 방대하여 즉시 印刷되지 못하였고, 世祖 5년(1459)부터 同 10년까지 梁誠之를 監修者로 삼아 주로 醫官習讀官으로 하여금 이를 校正케 하여⁵⁹⁾ 總 266卷 264冊으로 再編하였다. 그후 成宗 8년(1477) 5월에 비로소 30帙을 印刷하였는데, 이때 印刷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했으니,⁶⁰⁾ 처음 편찬한 이후 印刷에 이르기까지 32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 책의 體裁를 보면, 91개의 大綱門으로 나누고, 各 病門에 1篇에서 52篇까지의 病證과 處方法이 360篇 수록되어 있는데, 各 病門에는 먼저 그 門에 해당되는 病論을 들고, 다음에 方文을 그 出典의 年代順에 따라 記錄하였으며, 各 方文을 引用하는 데 있어서도 方書의 年代 先後와 文字의 重出 및 異同에 따라 그 밑에 일일이 註解를 가하고, 各 方書의 原文을 그대로 編入하였다.⁶¹⁾

이 책은 겨우 30帙만을 인쇄하여 內醫院 등 醫司에 分給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후 이 책은 다

51) 世宗實錄, 卷80 20年 3月 庚子條.

52) 金斗鍾, 前掲書, p. 293.

53)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 152.

54) 世祖實錄, 卷27 8年 2月 庚戌條.

55) 上掲書, 卷27 8年 2月 己卯條.

56) 成宗實錄, 卷10 2年 5月 丁酉條.

57) 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 取才條.

58) 世宗實錄, 卷110 27年 11月 戊辰條.

59) 世祖實錄, 卷17 5年 9月 癸未條, 同 卷18 5年 11月 戊申條, 同 卷31 9年 11月 壬戌條, 同 卷32 10年 正月 甲子條, 同 卷34 10年 9月 戊午條 등, 校正 관련기사가 많이 있다.

60) 成宗實錄, 卷80 8年 5月 丙戌條.

61) 金斗鍾, 前掲書, pp. 221—222 參照.

시 印刷되지 못한 채 壬辰倭亂을 맞이하여 대부분 소실되고, 1帙을 加藤清正이 가져가 江戸의 躰壽館에 보관하였다가 현재는 日本宮內省 圖書寮에 移藏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醫官 多紀元堅이 引用書 중 佚書 30部를 찾아 그 내용의 일부를 復原하여 소위 「醫方類聚採輯本」을 작성하였다.⁶²⁾ 「鄉藥集成方」을 우리 固有醫書의 一大集成이라 한다면, 이 「醫方類聚」는 東洋醫學의 一大結晶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비록 中國醫學을 類聚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 朝鮮醫學이 이러한 作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自主의인 발전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世界에 誇示할 수 있을 만한 文化的 業績인 것이다.

④ 其他醫書의 編纂

鮮初에는 救急方, 獸醫書, 食品書 등이 撰述되어 多方面에 걸친 發展이 있었다. 本項에서는 이러한 諸種 醫書를 각각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定宗 元年(1399)에 刊行한 「鄉藥濟生集成方」에 附刊된 「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이 있다. 現存하는 이 책은 麗末, 鮮初의 獸醫學 水準을 알려 주는 유일한 獸醫學書로 朝鮮前期 牛馬의 치료에 크게 활용되었다. 房士良의 序文에 의하면 趙浚과 金士衡의 主管下에 權仲和와 韓尙敬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⁶³⁾ 실제로는 房士良 등 醫官과 獸醫들이 참여하여 元의 馬醫方을 참고하면서 高麗의 獸醫知識(東人經驗方)을 활용하여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2卷 1冊인 本書의 내용을 보면, 「馬醫方」은 總論에 良馬相圖 등 28條, 各論은 五臟(門) 등 16개의 病門에 대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중에 「東人經驗牧養之法」 등 4條의 東人經驗方이 들어 있다 그리고 「牛醫方」도 總論에 相牛法 등 5條와 各論에 溫疫門 등 12개 病門에 대한 치료법이 있는데, 여기에도 「東人經驗治卒喘嗽」가 들어 있다. 이 책은 그 내용이나 장기간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高麗와 朝鮮 獸醫學의 結晶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本朝經驗方」이 있다. 이 책은 現存하지 않아서 撰者와 刊行時期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의 方文이 「鄉藥集成方」과 「醫林摘要」 등 여러 醫書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⁶⁴⁾ 太宗代부터 世宗初 사이에 각 醫司에서 경험한 치료법을 책으로 편집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는 麗末의 「東人經驗方」의 일부로 전해졌다가 鮮初의 새로운 經驗方과 합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이 책은 널리 이용된 醫書가 아니라 官邊에서 주로 이용되던 醫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世祖朝에는 「救急方」이 撰述되었다. 이 책은 同 12년(1466) 6월 8道에 「救急方」各 2件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아,⁶⁵⁾ 이즈음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原本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許浚이 諺解한 「諺解救急方」에 의해 보면, 中風, 中寒 등 45條의 치료법이 記錄되어 있으며, 總 34種의 醫書를 인용, 편찬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 「食療纂要」는 鮮初 代表的 醫官의 한 사람인 全循義가 撰述한 것으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醫官으로서 飲食物에 대한 營養과 藥理的 또는 醫方的인 解說을 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成宗 18년(1487) 右贊成 孫舜孝가 「食療纂要」를 王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그가 慶尙道 觀察使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⁶⁶⁾

成宗朝의 다른 醫書로 「新撰救急簡易方」이 있다. 이 책은 同 20년(1489) 內醫院 提調 尹壕를 비롯하여 任元潸·許琮·朴安性·權健·宋欽·車得驂·尹師夏 등 內醫院 醫官들에 의해 撰進된 것으

62) 三木 榮, 前掲書, pp.131—132 參照.

63) 趙浚等撰, 「新編集成牛馬醫方」, 木版本, 2卷 1冊, 高麗大 華山文庫, “房士良序文”.

64) 三木 榮, 前掲書, p.132 參照.

65) 世祖實錄, 卷39 12年 6月 壬子條.

66) 成宗實錄, 卷202 18年 4月 丙申條.

로 總 9 卷이다.⁶⁷⁾ 이 책은 현재 일부만 전하고 있어서 잘 알 수는 없으나, 당시의 여러 「救急方」을 類聚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救急方書로서는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지방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詳細하기 때문에,⁶⁸⁾ 諸道 監司에게 開刊, 印行토록 하여 널리 통용되었던 것이다(註 67 參照).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板本이 各地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⁶⁹⁾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醫方要錄」도 現存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成宗實錄」에

內醫院主簿許氐 進醫方要錄三卷 傳曰 甚便於觀覽 令內醫院 校正印之⁷⁰⁾

라 하여 許氐가 「醫方要錄」 3 卷을 撰進하므로 內醫院으로 하여금 校正하여 刊行하도록 한 기사가 있을 뿐이다.

끝으로 成宗朝에 編纂되고 燕山君代에 刊行한 「醫門精要」가 있다. 이 책은 現存하지는 않으나, 申用漑의 跋文에 의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成宗 24년(1493) 許琮이 王命을 받아 편찬에 착수하였는데, 그의 편찬목적은 「醫方類聚」의 要點을 발췌하여 이용하기에 간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醫方類聚」가 最高의 醫書이기는 하나 너무 방대하고 또 30 帙밖에 없어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이듬해에 편찬을 마쳐 成宗이 「醫門精要」라 命名하였으나, 許琮이 사망하므로 權健과 金諶이 校正하던 중 다시 成宗이 승하하여 일시 중단되었다가, 燕山君이 父王의 遺志를 이어 內醫院으로 하여금 이를 校正하게 하여 總 50 卷 87 門으로 完成, 同 10 年(1504)에 刊行한 것이다.⁷¹⁾

「醫方類聚」는 中國醫書를 깊이 연구하여 이를 集成한 것이지만 너무 방대하여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醫門精要」는 許琮이 요점만을 뽑아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中國醫學의 土着化에 성공함은 물론 한국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醫書였다고 생각된다.

B. 醫書의 刊行

醫學의 발달로 새로운 醫書가 계속 편찬되었고, 이에 따른 醫學敎育과 醫術普及 및 疾病의 치료를 위하여 國內外 醫書가 많이 刊行되었다. 本項에서는 이러한 醫書의 刊行을 國內外別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① 國內醫書의 刊行

國內醫書의 경우 麗末에 刊行된 것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資料의 貧困으로 考察할 수가 없기 때문에 太祖부터 成宗까지 편찬된 醫書를 中心으로 살펴 볼까 한다. 鮮初에 最初로 印刷, 普及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醫書는 「鄉藥惠民經驗方」이다. 麗末에 편찬된 이 책은 太祖 2 年(1393) 金希善의 건의로 各道에 醫院을 설치하고 敎授를 파견하여 이책을 가르치도록 건의한 것으로 보아⁷²⁾ 鮮初에 最初로 刊行된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67) 成宗實錄, 卷228 20 年 5 月 丁亥條, 同 卷232 20 年 9 月 丙子條.

68) 三木 榮, 前掲書, p.162 參照.

69) 魚叔權, 「攷事撮要」, 京城帝大, 「八道冊板目錄」.

70) 成宗實錄, 卷274 24 年 2 月 庚戌條.

71) 申用漑, 「二樂亭集」卷8 「醫門精要跋」.

72) 太祖實錄, 卷3 2 年 正月 乙亥條.

다음은 「鄉藥濟生集成方」이다. 이 책은 定宗 元年(1399)에 完成한 것으로, 金希善이 江原道 觀察使로 있을 때 이 책에 附刊된 「新編集成牛馬醫方」과 함께 刊行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없어지고, 附刊되었던 朝鮮 最初の 獸醫書인 「新編集成牛馬醫方」만 日本에 전해져 남아 있다.

다음, 朝鮮 最初の 產婦人科書인 「產書」가 있는데, 이 책은 著者と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이미 世宗 12년(1430) 12월부터 醫員과 醫女의 教育 및 取才科目으로 채택되었고, 世祖・成宗代에도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아(註 44~47 參照), 世宗 初에 刊行된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世宗代에 刊行된 「鄉藥採取月令」은 同 13년(1431) 12월에 刊行된 朝鮮 最初の 鄉藥本草書로서, 鄉藥의 採取와 乾正을 위해 編纂되었는데, 「鄉藥集成方」과 함께 韓國醫學 發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음 주로 醫司에서 이용되었으리라 생각되는 「本朝經驗方」은 撰者와 刊行年代를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의 方文이 「鄉藥集成方」 등에 인용된 것으로 보아⁷³⁾ 世宗 15년(1433) 이전에 편찬, 간행된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朝鮮前期 韓國醫學을 集大成한 「鄉藥集成方」 85卷은 既存의 鄉藥書와 中國醫書를 參考로 世宗 13년부터 同 1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편찬한 것으로 同年 8월 全羅, 江原 兩道에서 分刊하였다.⁷⁴⁾ 成宗은 9년(1478) 10월 이 책의 重刊을 지시하였고, 이어 同 11월에는 이 책을 四孟朔取才의 科目으로 정하는 한편, 질병치료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⁷⁵⁾ 또 成宗은 19년(1488) 9월 이 책에 들어 있는 「鄉藥本草」만을 뽑아 諺解하여 刊行하도록 지시하였는데,⁷⁶⁾ 이 「諺解簡易鄉藥本草」는 刊行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現存하지 않는다. 이 「鄉藥集成方」은 刊行된 후 醫學教育의 基本教材・取才의 講書 및 疾病治療의 方書로서 널리 活用되었으나, 世宗 때 刊行한 初刊本은 전하지 않고 있다.

盧重禮가 王命으로 著述한 「胎產要錄」은 世宗 16년(1434) 3월에 刊行되었다. 10餘種의 產婦人科方書와 小兒科方書를 인용해서 만든 이 책은 要點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醫員의 教育은 물론, 醫科와 醫員取才의 講書로 지정되어⁷⁷⁾ 朝鮮中期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이 책은 許浚이 宣祖 41년(1608) 明 醫書를 인용하여 改撰한 후 諺解하여 「諺解胎產集要」라 改名 刊行하기도 하였는데, 原本은 없어지고 重刊本만 日本에 전한다.

醫官 全循義와 金義孫이 편찬한 「鍼灸擇日編集」은 世宗 29년(1447)에 편찬・간행된 醫書로서, 鍼灸日時의 吉凶을 擇하기 위해 編纂한 것이다.⁷⁸⁾ 鍼灸는 가장 중요시되던 治療法의 하나로서, 鍼灸 專門醫를 養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 世宗의 命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책의 原刊本은 없어지고 抄本이 日本에 전해졌다가, 1890년 中國에서 覆刊되었기 때문에, 中國에서는 이 책을 自國人の 著述로 誤認하기도 하였다.⁷⁹⁾

다음 任元濬이 편찬한 「瘡疹集」은 世祖의 命으로 編纂・刊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刊行年代는 알 수 없지만, 撰者만은 日本의 「聿修堂藏書目錄」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⁸⁰⁾ 이 책은 世祖 8년(1462) 이후 習讀官의 所講醫書로, 醫科와 取才의 科目으로 지정되어 활용된 朝鮮 最初の 痘瘡書였다. 그리고 이 책은 뒤에 許浚이 「痘瘡集要」를 편찬할 때까지 매우 重視된 唯一한 痘瘡書였던 것

73) 三木 榮, 前掲書, p.132 參照.

74) 世宗實錄, 卷61 15年 8月 丁未條.

75) 成宗實錄, 卷97 9年 10月 丁巳條, 同 卷98 11月 壬申條.

76) 上掲書, 卷220 19年 9月 庚辰條.

77) 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 取才條.

78) 金信根, 前掲書, p.106, “金禮蒙序” 參照.

79) 三木 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133 參照.

80) 上掲書, p.152 參照.

이다.

역시 世祖代에 편찬된 「救急方」은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撰者和 刊行年代는 알 수 없으나, 世祖 12년(1466) 6월 8일에 「救急方」 2件씩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刊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¹⁾

世宗 27년(1445)에 編纂된 「醫方類聚」는 世祖代에 여러차례의 校正을 거쳐 成宗 8년(1477) 5월 266卷의 巨帙을 30部 刊行하였다.⁸²⁾ 원래 이 책이 처음 편찬되었을 때는 365卷이었으나, 여러 차례 校正을 거치는 동안 266卷으로 再編되었다. 그러나 現存하는 것은 250卷 252冊으로 16卷 12冊이 缺本이다. 活字는 당시에 사용되던 實錄字이며, 每冊 100餘枚나 되는 巨帙로서 당시 朝鮮의 醫學水準을 世界에 誇示한 文化的 業績인 것이다.

世宗에서 成宗代까지 활동한 醫官 全循義가 편찬한 「食療纂要」는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刊行年代를 알 수는 없으나, 成宗 18년(1487) 孫舜孝가 王에게 이 책을 바친 것으로 보아⁸³⁾ 당시에 간행되어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新撰救急簡易方」은 尹據, 任元濟 등 醫官 8명이 成宗 20년(1489) 5월에 편찬한 것을⁸⁴⁾ 同年 9월에 刊行하였다.⁸⁵⁾ 이 책은 「救急方」 중에서 要點만 뽑아 사용하기 간편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原州, 全州, 南原, 陝州, 昆陽, 海州 등 각지에서 印刊되어 널리 流布되었다(註 67 參照). 그러나 이 책도 完本은 없고, 3, 4, 6, 7冊 등 4冊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許祗가 편찬한 「醫方要錄」 3卷은 成宗 24년(1493) 2월에 완성한 것인데, 이때 王은 校正하여 印刷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끝으로 「醫方類聚」를 요약하여 刊行한 「醫門精要」가 있다. 이 책은 許琮이 방대한 「醫方類聚」를 사용하기 간편하게 50卷으로 요약한 것인데, 成宗代에는 간행을 못하고 燕山君 10년(1504)에 刊行하였다.

② 中國醫書의 刊行

世宗代에서 成宗代까지는 특히 醫學이 크게 발달하여 韓國醫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醫書가 多數 刊行되었으나, 三國時代 이래 醫學敎育과 治療에 이용된 대부분의 醫書는 역시 中國醫書로서, 우리나라 醫學發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醫書들은 수입된 이래 그 필요에 따라 京鄕 各地에서 印出되었다. 太祖와 定宗代에도 中國醫書가 刊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확인할 資料가 없다. 따라서 太宗~成宗까지의 그것만 주로 「朝鮮王朝實錄」을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太宗 때 가장 먼저 刊行된 것은 「鍼灸銅人圖」였다. 이것은 醫書는 아니지만 鍼灸를 施術하는 데 꼭 있어야 할 圖形으로서, 同 15년(1415) 12월에 간행하여 中外에 頒布하였다.⁸⁶⁾ 이것은 이해 10월 吳眞이 明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銅人圖」 2軸(仰伏)⁸⁷⁾을 가지고 만든 것이었다. 同 18년 7월에는 江原道 洪州에서 「疑獄集」을 重刊하였는데, 이책은 高麗 文宗 13년(1059) 2월에도 간행한 바

81) 世祖實錄, 卷39 12年 6月 壬子條.

82) 成宗實錄, 卷80 8年 5月 丙戌條.

83) 上揭書, 卷202 18年 4月 丙申條.

84) 上揭書, 卷228 20年 5月 丁亥條.

85) 上揭書, 卷232 20年 9月 丙子條.

86) 上揭書, 卷274 24年 2月 庚戌條.

87) 申用溉, 前揭書, “醫門精要跋文”.

88) 太宗實錄, 卷30 15年 12月 丁丑條.

89) 上揭書, 卷30 15年 10月 丁亥條.

있는 法醫學書로서⁹⁰⁾ 殺人의 疑獄을 檢證하는 데 이용된 것이었다.

世宗代에는 많은 醫書가 刊行되었다. 먼저 同 12년(1430) 3월 詳定所에서 정한 醫學의 取才 科目을 보면, 「直指脉」, 「纂圖脉」, 「直指方」, 「和劑方」, 「傷寒類書」, 「和劑指南」, 「醫方集成」, 「御藥院方」, 「濟生方」, 「濟生拔粹方」, 「雙鍾處士活人書」, 「衍義本草」, 「鄉藥集成方」, 「針灸經」, 「補註銅人經」, 「難經」, 「素問括」, 「聖濟總錄」, 「危氏得効方」, 「寶氏全嬰」, 「婦人大全」, 「瑞竹堂方」, 「百一選方」, 「千金翼方」, 「牛馬醫方」 등 25種인데,⁹¹⁾ 이들 醫書는 科目 자체가 敎材였으므로 敎育과 치료를 위해 대부분 刊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살펴 보기로 하겠다.

즉 同 13년 5월에 「直指方」, 「傷寒類書」, 「醫方集成」 각 50件을 鑄字所에서 印出하고, 「補註銅人經」은 慶尙道에서 印刊하여 典醫監을 비롯한 醫司에 分給하였다.⁹²⁾ 또 「危氏得効方」은 同 7년 春川府에서 刊行한 것이 전하고 있는 등⁹³⁾ 世宗實錄에 보이는 것은 많지 않지만 위에 열거한 醫書들은 대부분 刊行되었을 것이다.

世宗代에 刊行된 醫書 중 특이한 것은 「新註無冤錄」인데, 이 책은 法醫學書로서, 元의 王與가 撰述한 「無冤錄」에 註解를 가한 것이다. 이 책은 世宗 初부터 刑曹에서 실용되어 온 것이지만, 그 내용이 中國의 條例를 中心으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世宗은 崔致雲, 李世衡 등에게 命하여 여기에 音과 訓을 붙이고 어려운 文句를 해석하도록 하여, 同 20년(1438) 11월에 「新註無冤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頒布하였다.⁹⁴⁾ 이 책은 2년 후 原州에서 初刊되고, 同 29년(1447) 嶺西에서 再刊된 후 여러차례 刊行되었다.⁹⁵⁾

世祖代에도 數種의 中國醫書가 刊行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同 2년(1456) 8월 典醫監 提調 姜孟卿의 啓請에 의해 “本國刊行”의 「和劑方」, 「得効方」, 「永類鈴方」, 「衍義本草」, 「銅人經」, 「加減十三方」, 「服藥須知」, 「傷寒指掌圖」 등을 印出하여 習讀廳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보아,⁹⁶⁾ 이러한 서적들이 印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世祖 4년부터 10년까지 醫員의 必讀書로 지정한 醫書 중 (앞에 나온 것은 제외하고) 「本草纂圖」, 「黃帝素問」, 「張子和方」, 「小兒藥證直訣」, 「外科精要」, 「大全本草」, 「脈經」 등도⁹⁷⁾ 계속 刊行되었을 것이다.

다음 成宗 3년(1472) 四孟朔 醫員取才 科目 중 새로 지정된 「資生經」, 「十四經發揮」와 鍼灸醫取才 科目 중 「針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針灸摘英集」⁹⁸⁾ 및 醫女習讀書인 「和劑婦人門」⁹⁹⁾ 등도 刊行되었으리라 생각된다. 成宗 4년 日本 畠山の 使節 중 副使인 良心이 바친 「神應經」과 「八穴灸法」¹⁰⁰⁾을 이듬해 韓繼禧에게 命하여 刊行하게 하였고,¹⁰¹⁾ 同 15년(1484) 「救急易方」 1卷을 平壤府에서 刊行하였으며, 18년에는 「周府袖珍方」 9冊을 重刊하였다.¹⁰²⁾

同 19년(1488) 10월에는 成健이 明에서 구해 온 「東垣拾書」를 印刊하도록 內醫院에 지시한 바 있으며,¹⁰³⁾ 이 책은 그 뒤에도 여러차례 刊行되었다. 同 25년 3월에는 「拯急遺方」 上卷에 해당하는

90) 高麗史, 世家 卷8 文宗 13年 2月 甲戌條.

91) 世宗實錄, 卷47 12年 3月 戊午條.

92) 上揭書, 卷52 13年 5月 甲戌條.

93) 三木 榮, 前揭書, p.135 參照.

94) 柳義孫, 「檜軒逸稿」, “無冤錄序文” 參照.

95) 三木 榮, 前揭書, p.137.

96) 世祖實錄, 卷5 2年 8月 癸亥條.

97) 上揭書, 卷12 4年 3月 戊戌條, 同 卷26 7年 10月 壬申條 및 同 卷32 10年 正月 乙卯條.

98) 成宗實錄, 卷16 3年 3月 庚戌條.

99) 上揭書, 卷89 9年 2月 己酉條.

100) 上揭書, 卷33 4年 8月 甲申條.

101) 魚叔權, 前揭書, “冊板目錄”, 晉州板.

102) 多紀元堅, “聿修堂藏書目錄” 參照.

103) 成宗實錄, 卷221 19年 10月 辛丑條.

「加減十三方」1卷 30餘部를 인쇄하여 醫官들에게 下賜하였는데,¹⁰⁴⁾ 이 책은 御筆이 卷頭に 들어 있어 「御書加減十三方」이라 表題가 되어 있다. 또 「安驥集」과 「水牛經」도 이해 4월 李昌臣, 李琚, 權五福 등이 번역하여 印頒되었고,¹⁰⁵⁾ 法醫學書인 「業陰比事」와 「疑獄集」도 同 14년(1483) 8월에 간행하여 守令들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中國醫書는 世宗~成宗代에 많이 刊行하였는데, 이밖에도 鮮初에 刊行된 醫書가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확실한 典據가 없어 考察하지 못하였다.

5. 結 言

이상으로 三國 以來 鮮初까지 醫書의 編纂과 刊行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러나 麗末까지의 그것에 대하여는 史料가 零星하여 충분히 考察하지 못하고, 鮮初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韓國史上 醫學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는 世宗~成宗代였다. 그것은 政治的으로 安定된 시기이기도 했지만, 醫學과 民疾의 치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諸王의 爲民政策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麗末부터 크게 발달한 鄉藥에 대한 관심은 「鄉藥集成方」과 같은 文化的 業績을 이룩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古代 以來의 東洋醫學을 集大成한 「醫方類聚」의 編纂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當代는 물론 現代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偉大한 遺産을 우리에게 남겨 준 것이었다. 韓國醫學을 代表하는 三大醫書인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東醫寶鑑」중 二大醫書가 世宗代에 편찬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즉 그것은 당시의 韓國醫學이 이렇게 방대하고 優秀한 醫書를 편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世祖와 成宗도 새로운 醫書의 編纂은 물론 우수한 中國醫書를 계속 刊行하여 醫學發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뒤에 許浚이 「東醫寶鑑」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도 鮮初의 이러한 學問的 업적과 技術的 蓄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鮮初에 있어서 이러한 醫書의 編纂과 刊行은 韓國醫學의 自主的 發展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學問的·技術的 發達이 더욱 發展하여 계승되지 못하고, 明醫學의 수입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104) 上揭書, 卷288 25年 3月 癸丑條.

105) 三木 榮, 前揭書, p.164 參照.

106) 成宗實錄, 卷157 14年 8月 甲申條.